

# 전통과 전통의 만남... 한옥마을 한복패션쇼

## 태조로와 경기전사거리 일대 시민·관광객 참가 '한옥마을 태조로 한복 거리패션쇼' 최초 열려

대한민국 한복문화의 중심지인 전주한옥마을에서 전주시민들의 생활속 한복착용 문화 확산을 위한 한복패션쇼가 최초로 도로 위에서 열렸다.

전주시는 19일 주말을 맞아 차 없는 거리로 운영된 한옥마을 태조로와 경기전사거리에서 시민과 관광객들이 참가한 가운데 '한옥마을 태조로 한복 거리패션쇼'를 개최했다.

연간 100만여 명이 찾는 전주한옥마을은 자유롭게 한복을 입고 거니는 무수한 관광객을 찾아볼 수 있는 관광명소로, 세계 어느 지역에서 볼 수 없는 풍경을 자아내는 공간이다.

이에 시는 한옥마을로 국한된 한복 착용문화를 전주시 전역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

이번 거리패션쇼에서는 전통과 멋이 담긴 한복을 곁에 차려입은 모델들이 왕실복과 전통혼례, 신한복 등 다양한 한복을 차례로 소개했다.

또한 한복을 입은 관광객과 시민들이 함께 참여해 즐길 수 있도록 관람객들이 무대에서 워킹을 하거나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시민참여 행사도 마련됐다.

특히 이번 패션쇼는 단순히 보여주는 기식에 그친 것이 아니라 한옥마을 관광객과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역점을 두고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한복을 착용한 시민과 관광객들은 행사에 참여해 갖가지 과제를 수행함으로써 한복활성화라는 행사의 취지



전라감영지 발굴 조사지역 현장방문 김승수 전주시장이 지난 18일 옛 전북도청사 전라감영지 발굴 조사 현장을 방문해 현장조사단을 격려하고 유철조사단장(전주문화유산연구원장)과 함께 발굴조사 주요 유적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에 걸 맞는 내용의 문화행사를 만드는 일등공신이 됐다. 이와 관련, 시는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지난 2월 전주시 한복착용 문화 진흥 조례를 제정하고, '한복의 날'을 운영하는 등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도 한복을 즐겨 입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또한 지난 5월에는 '경기전 관람료 감면계획'을 수립, 한복을 착용한 관람객에게는 경기전 관람료의 50%를 할인해주는 정책도 시행해오고 있다. 시는 또 한복정책 추진방향과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등 오는 2017년에는 한복 관련 진흥정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 관계자는

"한복은 전통문화유산의 물줄기 중 매우 중요한 지류로서, 전주시가 한복문화를 선도하는 도시가 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지속적으로 고민할 것"이라며 "이번 행사와 같은 한복착용 진행행사를 자주 추진함으로써 한복에 대한 친근감과 일상성을 회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재 기자

# 박병술 의원 '전주교도소 미래유산으로 재창조' 제안

## "도시재생 프로젝트 근대유산공원 조성 검토해야"

전주시의회 박병술 의원이 전주교도소 이전 부지 활용 방안으로 전주교도소 부지 인근을 미래유산으로 재창조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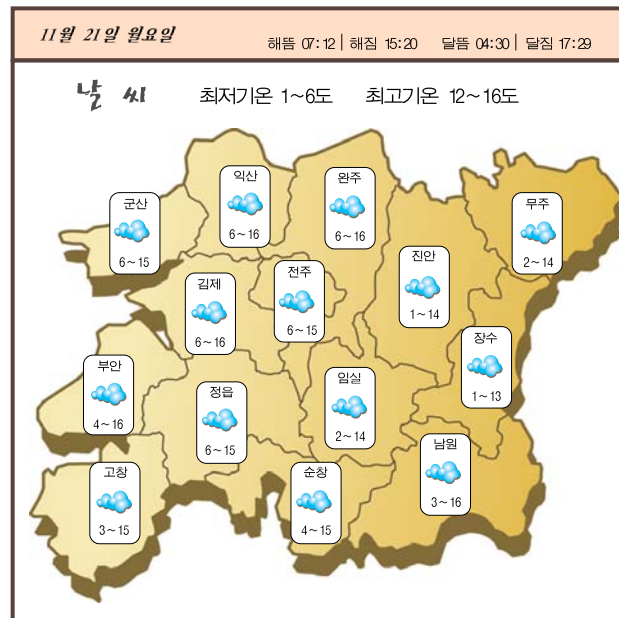


박병술 시의원(동서화동·서서화동·평화동)은 18일 전주시의회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나후된 평화동 도시재생과 미래세대를 위한 미래유산으로 전주교도소 부지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전주교도소는 1894년 최초 전북대학교 평생교육원 자리로 추정되는 곳에 설치된 뒤로, 1910년 11월 당시 전북동 322번지, 현재 노송동 주민센터 인근에 10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지어졌다. 이후 1950년 6·25전쟁으로 파괴돼 가건물 형식으로 사용했다. 1972년 11월 평화동 현 부지에 신축돼 44년이 지났다. 전국적으로 총 52개의 교도소 중 40여년이 지난 노후 교도소는 전주교도소를 포함해 총 9곳으로, 도시 확장에 따라 당초 외곽에 있던 교도소가 점차 도심지역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교도소 이전을 요구하는 민원이 쏟아지고

있는 형국이다. 박 의원은 "전주교도소 이전 사업은 기본조사 설계 용역 종료로 기존 자리에서 뒤편으로 300m 정도 이전할 계획이지만, 기존 부지에 대한 활용 계획은 전무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전주의 근현대사와 함께한 전주교도소 기존 부지에 근대문화유산을 보존 관리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실제 사례를 들어 "서울 서대문형무소는 1908년 일제에 의해 '경성감옥'이라는 이름으로 개소한 뒤 1945년 해방까지 독립 운동가들이 수감됐고, 해방 이후 1987년까지 서울 구치소로 이용되면서 민주화운동 관련 인사들이 수감되는 등 한국 근현대사의 굴곡을 안고 있는 상징적인 장소

로 1998년 일부 옥사와 사형장 등 원형건물을 보존해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으로 재탄생시킨 사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외국의 경우도 네덜란드 루드몬트 교도소는 현재 호텔로 이용되고 있고 세계적으로도 기존 교도소를 개축해 호텔 박물관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박 의원은 "서대문형무소와 외국의 교도소 활용 사례를 보면, 노후 교도소를 단순히 수명을 다한 건축물로 보지 않고 교도소의 공간과 역사적 의미를 재해석하고 미래유산으로 도시재생을 이뤄낸 것을 볼 수 있다"며 "전주교도소 부지도 최대한 원형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정책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 원광대-일본 불교대 공동 '국제불교문화학술회의' 개최

원광대학교(총장 김도종)와 일본 불교대학(총장 다나카 노리히코)이 공동 개최한 '제24회 국제불교문화학술회의'가 지난 15일 일본 교토시 불교대학 시조센터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원광대는 김도종 총장을 비롯해 원불교사상연구원 박행수 부원장과 원불교학과 박광수, 염승준 교수, 정영원 원광상 교수, 김태훈 책임연구원 등이 발표 및 토론에 참여했다. 학술회의는 불교대학 히로세 타구지 명예교수의 '사회변동과 불교-전통적 기반의 전환', 원광대 박광수 교수의 '문명전환기의 불교와 미래

의 역할'을 주제로 기초강연 열렸으며, 발표를 통해 참석자들은 불교를 비롯한 종교가 본래 지니고 있는 전통적 네트워크가 미래의 중요한 사회관계자본으로써 종교의 공공성과 공공성 실현을 위한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데 공감했다. 원광대 관계자는 "이번 국제학술회의는 20여 년 만에 양교 총장이 자리를 함께해 의미를 더했으며, 두 대학 간 진행되고 있는 학술교류의 수준을 격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도종 총장 일행이 불교대학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는 일본 정토종(淨土宗)의 본사인 지은원(知恩院)을 예방함으로써 향후 한국 원불교 교단과 일본 정토종 종단의 교류 활성화를 위한 계기를 마련했다. /고민형기자

## 수능시험 성적표 내달 7일 통지 17일 정시 지원전략 입시 설명회

2017학년도 수능시험의 성적표는 다음달 7일 통지되며, 17일에는 정시모집 지원전략 입시 설명회가 열린다. 20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정시전략 설명회는 다음달 17일 오후 2시 전북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되며 수험생들의 정시 지원 전략 수립에 도움을 준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다음달 19일부터 30일까지는 2주간 대면 정시

상담실을 가동할 예정이다. 대면 상담을 희망하는 수험생은 수능 성적 통지표,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을 정해 전북교육청으로 상담을 신청하면 된다. 한편 고3학년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다음달 2일에는 1박2일 일정으로 정시 대비 전문연수를 진행할 계획이다. /고민형기자

축! 전주매일 창간 8주년

**부안**으로  
**마실**오세요

주소: 부안군 부안읍 번영로 67, 202호  
만복건설 주식회사 임직원 일동

扶來滿福